

### 신임판사 34.9% 강남·특목고 출신

# 지방 명문고 명맥 끊겼다

#### 지역·계층 쏠림현상... 광주일고 3년간 배출 못해 사법부 '새싹'부터 보수화... 자정작용 상실 우려

“사법판동이 일어나는 시점은 갔다. 소장 판사들이 더 이상 뒷사람에게 입 바른 소리를 하지 않는다” 10년 차 남짓의 한 일선 판사는 사법부가 더욱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과거 활발했던 선·후배 판사들 사이의 내부 자정 작용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얘기도.

신임 판사들의 출신 지역과 계층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 보수화의 한 이유라 꼽힌다. 실제 매년 신규 임용되는 판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강남 소재 고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가치관에 귀 기울여 사회적 갈등을 마지막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사법부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지역·계층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연합뉴스가 대법원의 판사 임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10~2012년 신규 임용 판사 499명 가운데 특목고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고교 출신은 174명

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했다. 특목고 졸업생은 전체의 24.6%인 123명, 강남 고교 출신은 51명으로 10%를 넘었다. 강남·특목고 출신 판사는 2010년 31.6%, 2011년 35.7%, 지난해 37.0%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고교별로 보면 대원외고 출신 신임 판사가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학교 출신은 2위인 명덕외고(18명)의 배에 가까웠다.

3년 동안 10명 이상의 새내기 판사를 배출한 고교는 네 곳으로 한영외고(17명)와 대일외고(10명) 등 모두 수도권 소재 외국어고였다.

몇 년 전만 해도 희귀했던 과학고 출신 판사도 서울과학고 4명, 광주·한성·강원·대구과학고 각각 2명 등 16명이나 배출했다.

특목고를 제외한 서울 일반고 출신 판사들 사이에서는 ‘강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 기간 법원에 발을 들인 강남 3구 출신 판사는 모두 51명으로 서울 시내 ‘비(非) 강남’ 22개구

전에서 배출한 45명보다 많았다. 반면 과거 비평준화 시절 판사를 다수 배출하며 신분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한 지방의 명문 고교들은 명맥이 거의 끊겼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모교인 경남고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나온 광주 제일고는 3년 동안 판사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들과 함께 과거 법조계 최다 인맥을 형성했던 부산고와 전주고·경북고 출신 판사는 각각 1~2명에 그쳤다.

대부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곧바로 임용된 이들과 달리 올해부터는 최소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만 판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외고를 중심으로 한 특목고 출신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법조계에 대거 수혈된 탓에 이들의 독주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로스쿨이 사법고시를 대체하는 법조인 양성 통로가 되면서 오히려 특목고·강남 쏠림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2012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614명 가운데 특목고 출신은 219명(35.7%), 강남 소재 고교 출신은 98명(16.0%)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 한국신문협회 “온라인 뉴스 저작물 보호조치 필요”

### 제328차 이사회

한국신문협회(회장·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제328차 이사회가 김희창 회장과 변용식 조선일보 사장, 송필호 중앙일보 부회장, 김여송 광주일

보 사장 등 이사진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관련 세누리당과 민주당의 입법 동향 등 차이점을 비교하고, 향후 신문협회의 대응 방안을 토의

했다.

특히 포털 규제에 대한 논의 초기에 뉴스 서비스 분야가 소홀히 다뤄졌다고 판단, 국회와 정부 등을 대상으로 건전한 온라인 뉴스 생태계 구축 및 뉴스 저작물 보호조치 필요성 등의 요구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신문협회는 전국 대표 일간지 및 통신사 47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사진은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일보가 유일하다.

한국신문협회는 전국 대표 일간지 및 통신사 47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사진은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일보가 유일하다.

한국신문협회는 전국 대표 일간지 및 통신사 47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사진은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일보가 유일하다.

## 전남 대형보조사업 ‘주먹구구’ 지자체 합동평가 전남 ‘꼴찌’

### 감사원, 국고사업 실태 보고

### 여수 크루즈 사업 3년째 적자

### 영암 비독테마파크 예산 낭비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대형 보조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중도 포기되거나 흐지부지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집행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도 분청과 일선 시·군에서 국비 보조를 받아 추진한 사업 일부가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강행되거나 중복 지원되는 부실했다.

전남도가 추진중인 ‘이순신장군 승선크루즈 개발사업’은 국·도비 140억6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최근 3년간 최대 15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합평군의 ‘양서·과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투·융자 심사로 받지 않은 채 120억원이던 사업비를 두 차례에 걸쳐 195억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남자연사박물관 전시품에 비해 박물관 규모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애초 사업비 8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150억원으로 사업비를 늘리고도 관련 정부 부처의 보조사업 변경 승인이나 전남도의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았다.

### 또 영암군은 국비 170억원과 도비 115억원, 군비 115억원, 민자 200억원 등 총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비독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중앙 투·융자심사를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결국 사업을 중단해 시설설계 용역비 등 27억원 상당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 이밖에 해남군의 산림조합 특화사업, 신안군의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 합동평가는 지난 3~5월 기획재정부·법무부·안행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4개 부처 소관의 9개 평가분야, 38개 시책에 대해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 이 평가에서 전남도는 지역경제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아 성적이 가장 낮았다. 광주시는 가등급 2개, 나등급 6개, 다등급 1개를 받았다. 반면 부산·인천·대전·충북·전북·경북·제주 등은 ‘우’ 평가를 받았다.

###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선 서울시가

### 기재부·안행부 등 24개 부처... 광주는 ‘보통’

### 정부의 16개 시·도 합동평가에서 전남도가 꼴찌를 차지했고, 광주시는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 안행행정부는 26일 “지난해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시행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 합동평가는 지난 3~5월 기획재정부·법무부·안행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4개 부처 소관의 9개 평가분야, 38개 시책에 대해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 이 평가에서 전남도는 지역경제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아 성적이 가장 낮았다. 광주시는 가등급 2개, 나등급 6개, 다등급 1개를 받았다. 반면 부산·인천·대전·충북·전북·경북·제주 등은 ‘우’ 평가를 받았다.

###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선 서울시가

### 문화관광과 지역개발을 뺀 7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아 최하위였다.

### 안행부는 평가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를 여는 한편 지자체 간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와 정부포상을 줄 예정이다.

### 안행행정부는 26일 “지난해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시행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 합동평가는 지난 3~5월 기획재정부·법무부·안행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4개 부처 소관의 9개 평가분야, 38개 시책에 대해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 이 평가에서 전남도는 지역경제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아 성적이 가장 낮았다. 광주시는 가등급 2개, 나등급 6개, 다등급 1개를 받았다. 반면 부산·인천·대전·충북·전북·경북·제주 등은 ‘우’ 평가를 받았다.

###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선 서울시가

### 문화관광과 지역개발을 뺀 7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아 최하위였다.

### 안행부는 평가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를 여는 한편 지자체 간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와 정부포상을 줄 예정이다.

### 안행행정부는 26일 “지난해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시행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 합동평가는 지난 3~5월 기획재정부·법무부·안행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4개 부처 소관의 9개 평가분야, 38개 시책에 대해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 이 평가에서 전남도는 지역경제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아 성적이 가장 낮았다. 광주시는 가등급 2개, 나등급 6개, 다등급 1개를 받았다. 반면 부산·인천·대전·충북·전북·경북·제주 등은 ‘우’ 평가를 받았다.

###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선 서울시가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광주 국제행사 성공개최 힘 모은다

###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연합 창립1주년... 30일 기념행사

광주 시민이 주축이 돼 결성된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광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창립 1년째를 맞은 협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대비해 ▲대외홍보 ▲도시정결 ▲도로교통 ▲숙박음식 ▲시민참여 ▲문화관광 ▲건강상거래 등 7개 분과, 25개 실천과제를 발표·추진중이다.

특히 청소년동맹과 청소년동맹연합, 청결봉사대 등 시민 1만6000여명과 함께 진행한 ‘도시정결 운

동’은 시민이 중심이 돼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

협의회는 또 성공적인 국제대회를 위한 우수 숙박업소 육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시와 공동으로 우수숙박시설 지원·육성사업을 도입해 숙박업소 주차장 가림막 제거, 집객(계산)대 개방형 전환, 조식제공시설 설치 등 광주형 ‘크린호텔’ 지정 사업도 진행 중이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글로벌 에티켓 캠페인, 국제행사 시민참여 운동 전개, 방문 외국인 대상 맞춤형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도 진행 중이다.

또 국제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매체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노성대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장은 “민선 5기들어 대형 국제행사가 연이어 유치되면서 광주가 국제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국제도시 광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친절·질서·정결 등 선진 문화시민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시민 캠페인, 국제행사 시민참여 운동 전개, 방문 외국인 대상 맞춤형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도 진행 중이다.

##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 사 | 원 | 모 | 집

사계절 푸르른 양간디, 친환경 나비의 고풍 합평다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서**  
- 웨이츄레스(신입 및 주임급)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복지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총원시까지(총원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차 개별통보
- 접수처**  
- 주 소: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061-320-7717  
- 팩 스: 061-320-7710  
- 이메일: seungtae01@naver.com

임팩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식후 혈당상승 억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환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서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

## 편백경침경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등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경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경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음성카운터](주백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발목펌프(주백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